

2014년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 보고

문화예술트렌드 분석 및 전망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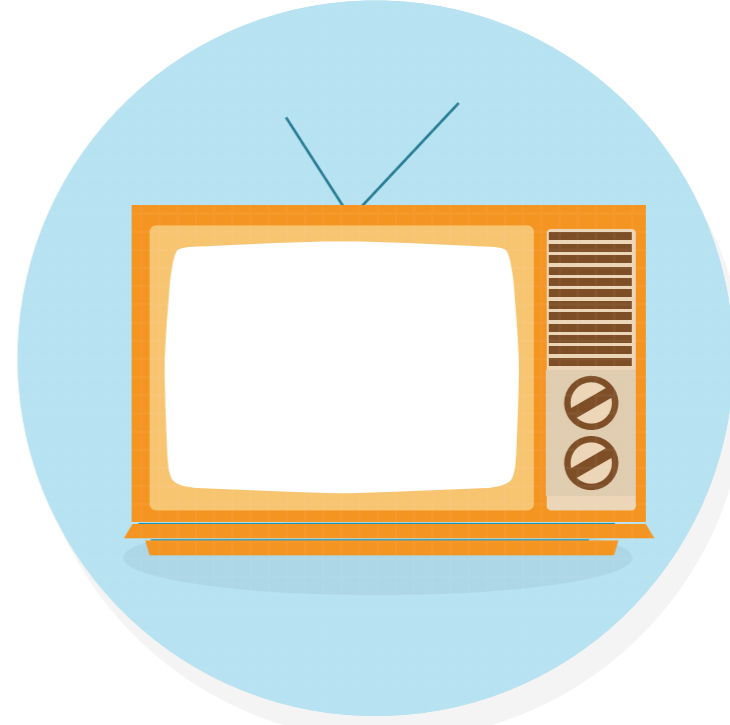
- 경과** 2010년부터 매년 문화예술 현장의 변화와 특징을 분석·발표
-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관으로 업계, 학계, 언론, 홍보 등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

가볍고 편하게 즐기자 스낵 컬처(Snack Culture) 유행



바쁜 현대인들이 스마트 기기로
빠르고 소소하게 즐기는 웹·모바일
영상 콘텐츠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집중하는 TV 전략적 타기팅



독신남녀, 기러기야빠, 홀로사는
노인까지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자, 개인을 타깃으로
한 TV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협업하는 생활문화예술



각 지역의 시설을 기반으로 동호회 및
문화예술모임이 생활밀착형으로 진화하고
다양한 문화와 서비스가 융복합된
공간의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성장엔진은 사람이다 (전문인력양성의 본격화)



다양한 문화예술계 인력양성제도가
본격화 되어가고, 예술인이 1인 창업으로
자신만의 문화영역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갑·을 관계 허물기의 시작



문화예술계의 불공정관계 문제가
개선되어가고, 저작권에 대한 규범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범주도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히스토리가 스토리로 문화유산의 재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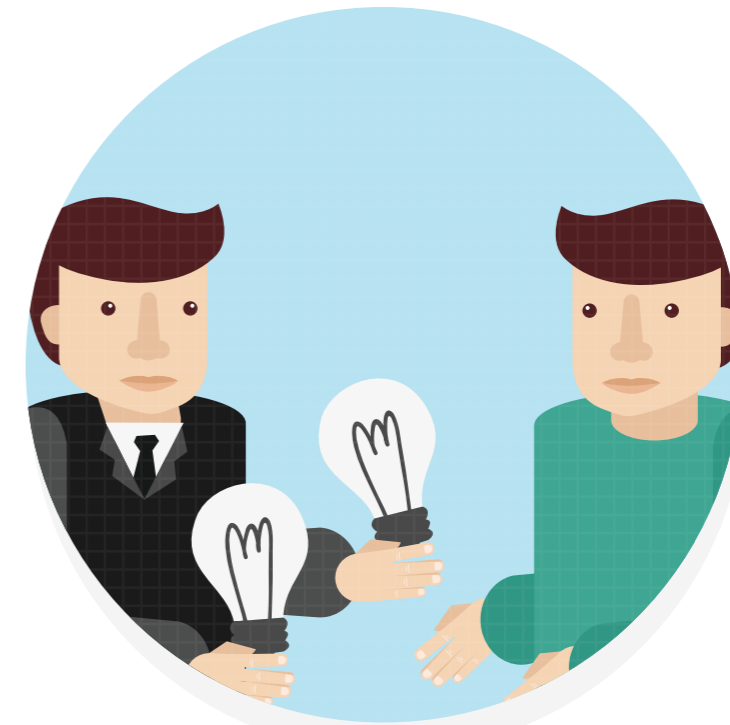
국제적으로 문화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스토리텔링으로
문화유산을 새롭게 재조명하고
문화상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시대 청소년의 새로운 가능성



디지털시대를 주도하는 청소년이
문화 생산자이자 주체자로서 문화예술을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업, 문화예술로 가치를 공유하다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인식이
공유가치창출이라는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어 예술과 기업의 수평적
파트너십이 더욱 기대됩니다.

인문학 열풍 (인간의 본질에 대한 재집중)



인문학에 관심이 더욱 집중되어 융복합적
가치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문화시설을
연계한 인문학 프로그램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화, 국가정책의 키워드가 되다



문화융성 국정기조로 채택, 문화의 가치를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강조되어, 문화 예술과
타분야와의 협업과 다양한
제도적 장치도 확대될 것입니다.